

중동 및 튀르키예 관광시장 동향 ['26.5월]

□ 관광전략 및 정책 동향

- (UAE) 아즈만,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승인
 - 아즈만 토후국 왕세자 겸 집행위원회 의장은 관광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문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 관련 수수료 납부 유예 및 과태료 면제 등이 포함된 지원 패키지를 승인함
 -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이자 할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, '26년 말까지 박물관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임

- (UAE) 라스알카이마, 내수 스테이케이션 수요가 관광 산업 회복력 견인
 - 중동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, 라스알카이마 호텔 업계는 거주자 및 인근 지역 여행객의 단기 휴가 수요 증가로 70~90%의 높은 객실 점유율을 유지함
 - 특히, 'RAK Moments' 캠페인을 통해 숙박, 식사, 웰니스 등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한 결과, 올 해 UAE 내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음

- (UAE) 아부다비, 세계 박물관의 날 기념 주요 박물관 무료 개방
 - '세계 박물관의 날(5월 18일)'을 기념하여 아부다비 사디야트 문화지구 내 기관을 포함한 박물관 및 유적지가 무료 개방됨
 - 금번 조치로 이란-미국 전쟁의 긴장 상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만회하고 내국인의 관광 참여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조치임

- (튀르키예) '26년 1분기 관광 수입 전년 대비 4.2% 증가
 - 튀르키예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, '26년 1분기 관광 수입은 약 99억 달러(약 13.6조 원)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.2% 성장함
 - 총 방문객 수는 926만 명으로 동기 대비 1.5% 증가하였으며, 이 중 해외 거주 튀르키예인이 전체 방문객의 약 25.7%(238만 명)를 차지하며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견인함

□ 비자 및 항공 동향

- (사우디아라비아) 사우디아라비아-러시아, 상호 비자 면제 시행
 -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'26년 5월 11일부터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시행하였으며,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비자 없이 회당 최대 90일까지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음
 - 양국 간의 항공 노선 증편 및 관광 상품 개발 가속화가 예상되며, 특히 중동 내 러시아 관광객 유입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

- (UAE) UAE 국적항공사 운항 횟수, 전쟁 이후 최초로 1,000회 돌파
 - '26년 4월 23일 기준, UAE 4개 항공사(에미레이트, 에티하드, 에어아라비아, 플라이두바이)의 총 운항 횟수가 1,015회를 기록함
 - 이로써 전쟁 직전인 2월말 총 운항횟수 대비 약 67% 수준까지 운항률을 회복하여 항공 분야의 조속한 활성화를 추진 중임

- (UAE) 에티하드 항공, 아프리카 증편으로 아시아 노선 연결성 강화
 - 에티하드 항공은 아프리카 5개국(콩고민주공화국, 에리트레아, 가나, 나이지리아, 짐바브웨)에 대한 신규 노선 확대를 발표함
 - 이번 네트워크 확장은 최근 발표된 중국 노선 증편 및 중국동방항공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연계된 것으로, 아부다비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핵심 관문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임

□ 아웃바운드 여행 동향

- (UAE) '이드 알 아드하' 연휴 앞두고 항공권 가격 급등
 - 이드 연휴(5월 25일~29일 예상)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, 항공사의 공급 회복이 수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과 동시에 유류 할증료 상승이 맞물리며 항공 가격이 지난 1~2월 성수기 수준을 크게 상회함
 - 특히, 런던·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가 연결편까지 찾아 예약할 만큼 강세를 보임

- (UAE) 에티하드 항공, 연휴 시즌 항공권 최대 30% 할인 프로모션
 - 에티하드 항공은 이드 알 아드하(Eid Al Adha) 연휴와 여름 방학 시즌

을 타겟팅하여 스페인 말라가, 마요르카, 미코노스 등 주요 인기 휴양 노선 항공권을 최대 30%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함

○ (UAE) 이드 알 아드하 연휴, 해외여행 선호도가 압도적

- 이드 알 아드하 연휴 여행 예약 중 72%가 해외 노선으로 해외여행 선호도가 압도적이며 특히 몰디브, 태국(푸켓), 그리스, 프랑스, 모리셔스가 예약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
- 긴 연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다구간 일정과 프리미엄 경험에 대한 수요가 뚜렷함
- UAE 국내 여행 예약의 약 70%는 두바이에 집중되어 있으며, 호텔들의 경쟁력 있는 요금에 수요를 뒷받침 하고 있음

○ (사우디아라비아) 플라리아딜(Flyadeal), 이탈리아·체코 신규 취항 및 유럽 노선 확장

- 사우디아라비아의 LCC 항공사 플라리아딜은 '26년 7월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와 체코 프라하에 신규 취항 할 예정임
- 인기 여름 휴양지인 터키 트라브존, 보스니아 사라예보,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노선도 7월부터 운항을 재개함
- 전 좌석 이코노미(186석) 구성의 기체를 투입하여 합리적인 가격대의 유럽 여행 옵션을 제공함으로써,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 및 거주자들의 여름 휴가 수요를 흡수하려는 전략임

○ (튀르키예) 아웃바운드 시장, 실속형 무비자 여행 선호 뚜렷

- 항공 운임 및 글로벌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여행 수요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
- 튀르키예 아웃바운드 시장의 성격은 중동 내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거리보다는 인접 국가 위주의 지역 내 여행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함
- 특히, 비자 발급의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, 튀르키예 여행객들의 선택이 주로 무비자 목적지에 집중되고 있음

□ 기타 전쟁 동향

○ (UAE) 학교 개학 및 정세 불안 완화에 따른 입국 수요 급증

- 5월초 UAE 내 학교 개학 및 대면 수업 재개 시준과 맞물려 지역적 긴장 상태 및 항공편 취소로 입국하지 못했던 거주자들의 귀환 수요가 최근 2주간 크게 급증함
- 영공 폐쇄 및 항공기 경로 변경 등의 혼란이 점차 해소되면서 대기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, 주요 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평시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

※ 출처 : 현지 언론 종합 (www.arabnews.com, www.khaleejtimes.com, www.gulfnews.com, www.thenationalnews.com 등)